

## 앵커리지

###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14주년 창립예배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는 지난 6월 2일 14주년 창립예배를 드렸다.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온 교인들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번 창립예배에는 3대 담당목사님이셨던 정웅규 목사님께서 강사로 초청되어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다. 목사님은 병 치료중에도 방문해 주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 특히 정목사님은 지금 교회의 건물을 구입하고 이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시고,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힘썼던 시간들

을 나누시며, 이제 다시 방문하게 되어 교회가 성장하고 성전이 더욱 아름답게 변한 모습을 보고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격려하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교회는 선교사명의 주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20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주는 그리스도 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알려주실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 즉, 복음을 전해야 하

는 사명이 있는 입니다. “

점점 타락해지는 세상가운데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명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임을 깨닫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권면해 주셨다.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였다.

올해는 창립감사예배와 더불어 같은날 오후 4시반 본당에서 임직 예배를 드렸다. 2명의 안수 집사와 3명의 권사가 임직하였다.

2개월 임직훈련을 받으면서,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들을 배우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였다. 세워진 리더들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귀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였고, 성도들도 기쁨으로 축복해 주는 시간이였다.

노경호 목사



## 관

## 관 온누리, 차세대 과학교실 열어



## “엄마 아빠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은 실험하며 과학 배워”

관온누리교회(담임목사: 김형철)는 지난 5월 8일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예배 시간 동안 차세대를 위한 과학교실을 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다양한 과학적 원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과학교실은 관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박진 성도의 재능기부로 진행되었다. 과학을 전공하고 현재 ‘스마트랩’에서 과학 강의 및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 성도는 “차세대를 섬기

며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고 싶어 이번 과학교실을 열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과학교실을 통해 차세대들은 ‘건전지와 자석의 원리’, ‘일렉트론’, ‘일렉트릭 필드’, ‘플레밍의 법칙’ 등을 배웠으며 직접 실험해보며 그 원리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건전지에 네오디움 자석을 연결하고 구리선으로 모양을 만들어 건전지 주변을 회전하도록 하는 실험을 하며

차세대들은 연신 호기심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선생님, 제가 만든 거 엄청 빨리 돌아가요”, “선생님, 배터리를 거꾸로 세우니까 아까랑 반대방향으로 돌아가요” 등 아이들은 실험을 통해 자신들이 발견해 낸 것들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차세대 과학교실에 참여했던 이세영양은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미들스쿨 수준의 것이라고 하셨다”며 한껏 신나는 모습을 보였다.

조수진 성도는 “그 동안 어른들이 수요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놀면서 보냈는데 과학교실이 있어 아이들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어른들도 아이들 걱정 없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형철 담임목사는 “박진 성도님께서 귀한 섬김을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과학교실 뿐 아니라 다른 재능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양한 교실들로 차세대를 섬겨주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명선 통신원

## 로스엔젤레스

라비에벨 리트릿  
'아름다운 동행'

2019년 봄학기 라비에벨을 은혜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5월9일~10일, 1박2일 일정으로 라비에벨 회원들은 수학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포함 31명의 인원이 사모님들께서 정성들여 준비해 주신 도시락 가방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공원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손도손 교제 후 우리 일행은 Lake Arrowhead를 향해 출발~! 날씨는 흐리고 가랑비가 내려 한 층 운치는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사역자분들께서 고생을 무릅쓰고 운전하여 정상을 향해 안개의 터널을 뚫고 올라가니 천국같이 밝고 맑은 햇살이 우리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산 높은 곳에 위치한 수목원에서 쉼을 갖고 아름다운 호수 Arrowhead를 향해 다시 출발했습니다. 호수는 한 폭의 그림이었고, 작은 유람선을 타고 1시간을 둘러보며 자연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의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앞으로 남은 생애에

선 잇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박2일 동안 교역자분들의 섬세한 배려와 섬김, 천배영, 윤진영 집사님 내외의 식사와 사진촬영 등의 모든 섬김에 감사 드립니다.

라비에벨 김수잔 집사



로스엔젤레스

## 유두고에서 사회선교로



**“...교회의 역할과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참여하는 모두가 은혜로운 체험과 섬김의 문화를 경험하는 사회 선교의 방향성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 년, 암예방 세미나로 시작된 ‘유두고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선교부 내 사회선교팀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역의 기반을 다지고 사회 선교의 취지에 맞게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시더스-사이나이 병원과 신뢰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업 모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장암 세미나는 시더스-사이나이에서 한인커뮤니티 최초로 대장암 진단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진단 키트의 회수율이 80%를 넘어 병원 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커뮤니티는 좋은 검진을 무료로 받았고, 병원은 기록적인 회수율의 원인과 절차를 분석하여 다른 커뮤니티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리서치 자료와 성공적인 협업 관계의 결과를 학계 등에 발표할 수 있는 실적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 주고, 한인 공동체에 보다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리라 기대합니다.

세미나 내용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육체 건강 콘텐츠에 더하여 정신 건강 및 이민 생활에 필요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8 일에는 이예스더 임상심리 박사님을 모시고 정신 건강 두 번째 세미나, “스트레스 활용법” 이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강의와 더불어 자가 진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스트레스를 어떻게 삶의 활력소로 이용할 수 있을지 목표를 세우고 각자 실행계획을 정리하며 마쳤습니다.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이 좋았다는 피드백이 많았고, 앞으로 더 진전된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유두고팀 세미나는 교회에 대한 심리적인

경계를 허물기 위해 비 교인들에게 세미나를 무료로 오픈하며, 장소는 교회이지만 교회 같지 않은 분위기 조성 and 각별한 섬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와 팀 취지에 공감하는 커뮤니티 내의 호의적인 미디어 보도 등에 힘입어, 비 교인 참석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역할과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참여하는 모두가 은혜로운 체험과 섬김의 문화를 경험하는 사회 선교의 방향성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역하는 팀원들, 강사로 섬겨 주시는 분들 모두가 섬김을 통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유수훈 팀장

## 뉴저지

## 뉴저지 온누리교회 안수집사 임직예배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5월 5일(주일)에 안수집사(20명) 임직식이 진행이 되었다.

이날은 뉴저지 온누리교회의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특별했다. 임직예배 설교자로 나선 심상현 목사(뉴욕 In2 온누리교회 담임)는 ‘고난도 기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리더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참석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2부 순서로 진행이 된 임직식은 서약, 안수 기도, 선포, 축가, 축사, 권면, 축하영상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은 손서영 집사는 “안수집사 임직조건에 충족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그리스도로 인해

자격 없지만 은혜로 구원 받은 것처럼 안수집사 임직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직자 스쿨이 한 주 한 주 진행이 되어 갈 때마다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이 더욱 선명해졌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예배의 자리에 자주 머물며, 기도생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일대일 교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지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주의 일을 섬기는 것이 수고가 아닌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의 기쁨이고 특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성상우 집사는 “제가 잘나서, 혹은 잘해서 집사의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을 나눌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더욱더 하나님과 교회를 섬김으로 주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뉴저지 온누리교회 Marc Choi 담임목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를 위해 섬기며 나

아가는 영적 리더가 되기를 임직자들에게 권면하였다.

예수 바보 행전을 실천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바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장동원 목사



## 십자가의 길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4월 15일 부터 일주일간 ‘십자가의 길’을 진행하였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5개의 스테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스테이션은 가상철언의 내용으로 만들어졌으며 동선마다 묵상 방법과 체험 안내에 대한 소개가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에게 적용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하며, 깊은 개인 묵상으로 들어가는 여러 반응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고백이 이곳 저

곳에서 이어졌다.

성도들은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리스도의 수난 사건을 ‘십자가의 길’이라는 보고 듣고 만짐으로 체험할수 있는 테마묵상 프로그램이 계속 되길 원한다고 전하였다.

뉴저지 온누리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헌신의 사랑을 묵상하고 체험함으로 그 헌신과 사랑을 세상에 녹여 낼수 있길 소망해본다.

장동원 목사



뉴욕

# 뉴욕 IN2 온누리, 말씀 암송집 발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각 공동체가 말씀을 암송하여 주일에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해동안 암송할 구절들이 담긴 IN2 말씀 암송집을 발간 하였다.

그간 BYOB(Bring Your Own Bible)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발간된 암송집이다. 뉴욕 IN2 교회 심상현 목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인투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교역자를 비롯

하여 전교인이 함께 말씀 암송을 시작했다. 특별히 5월 한달은, 차세대와 교사, 순장과 리더쉽들이 특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2019년 한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투교회 전교인의 마

음발이 풍성해지며, 또 말씀을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나눌수 있기를 소망한다.

뉴욕 IN2 온누리교회

## 2019년 봄학기 한글학교 졸업식

뉴욕 인투 온누리교회 한글 학교는 8번째 학기의 졸업식을 맞이 하였다. 한글학교의 비전은 다음세대가 한글과 한국 문화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글이 도구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졸업식은 교육부 담당인 이은택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새싹반(4세) 부터 여름반(2학년) 까지는 한글 동요, 찬양과 율동으로 한학기를 즐겁게 마무리 했다. 가을반과 겨울반 상급반 아이들은 연극과 감사편지 낭독을 통해 한국어로 연기를 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새싹 2반 이기쁨 교사는 “두려움반, 떨림반으로 섬겼었는데 아이들 안에서 함께 울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뒤통게 보았습니다. 쓰담쓰

담 토닥토닥 어루만지시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너는 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을 전할수 있는 통로가 됨을 감사하다 전했다.

한글학교 박정아 교감은 계속해서 인투 교회의 한글학교를 통해 하나님되심을 세상이 알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가길 원한다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인에게 주신 정체성을 통해 삼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비전,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담은 뉴욕 인투 온누리교회 한글학교가 되길 소망한다.

뉴욕 IN2 온누리교회





## 산타모니카

##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전교인 피크닉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정장철 담임목사)는 지난 5월 11일(토요일) Beverly 지역에 있는 Roxbury Park에서 전교인 피크닉을 가졌다.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온다고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좋은 날씨속에서 피크닉이 진행되었다. 차세대, 청년, 성인부서 모두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되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종류의 고기와 샐러드, 과일 그리고 오삼불고기는 피크닉의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또한 조별로 함께한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웃으며 서로 몸을 부대끼며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피크닉에 참석한 몇몇 성도님들의 소감을 들어 보았다.

“주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으로 나가서 전 교인들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은혜로운 피크닉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맛있는 바베큐

파티후에, 2부 예배를 드리는 청년, 학생들과 한 팀으로 게임도 하며 교회 공동체로서 유니티를 경험할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내년의 피크닉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성인부, 김미연 자매)

“이번 피크닉을 통한 화목한 교제의 시간은 교회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이웃 사랑의 기회였다. 교회에서 늘 얼굴만 마주치거나 인사하던 분들과 식사와 게임의 시간을 통해 친해질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청년부, 박호인 형제)

“2019년 5월 12일 저에게는 꿈만 같던 전교인 피크닉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피크닉에 참석하기 위해 라이드를 받은 차안에서의 대화에서부터 피크닉 전체 순간 순간이 저에게는 산타모니카 온누리에서 느끼는 따뜻함

의 시간이었어요. Transfer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시기에 산타모니카 온누리에서 들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20대로서 내딛는 나의 첫자리를 알게 되었고, 또한 이번 피크닉을 통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흔들릴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박민정 자매)

산타모니카 공동체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몸을 부대끼며 신앙생활 해 나갈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해 본다.

진영국 목사